

대형계열기획보도—백성이야기 (164)

밤 9시, 보온함 가득 채운 ‘애심도시락’이 만드는 감동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내는 김순금 사장의 ‘엄마’의 마음



애심도시락 보관함에 도시락을 넣고 있는 김순금 사장 / 진연룡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더 잘 알지요. 이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연변대학 근처 미식거리의 한 음식점 문어구에 설치된 ‘애심도시락’ 보온함은 이 가게 사장의 정성이 담겨진 따뜻한 도시락들로 가득 채워진다. 이윽고 학생들이 하나 둘 조심스레 보온함을 열고 무료 도시락을 받아간다. 이렇게 ‘애심도시락’을 만들어 주변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며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연길시한금옥소고기국밥집의 김순금 사장이다.

최근, 기자는 연변대학 학생들로부터 ‘옴 이모’, ‘착한 사장님’이라 불리는 김순금 사장을 만나 ‘애심도시락’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엄마’의 따스함 담긴 ‘애심도시락’

“좋은 재료만 쓰고 그날 음식은 그날 판매한다”는 원칙으로 조선족 전통 음식의 맛과 정성을 지켜온 김순금 사장은 지금은 전국에 38개의 한금옥소고기국밥집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훈춘, 장춘 등지에서 음식점을 해온 그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진심이 담긴 맛으로 정직하게!’라고 강조한다. 그녀의 이런 진정성은 이제 ‘애심도시락’으로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연변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또래 친구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그릇이라도 더 먹고 싶은 마음에 김순금 사장은 연변대학 근처에 한금옥소고기국밥집 분점을 열었다. 조선족 전통 음식의 진정한 맛을 지키며 정직하게 장사한 덕에 단골이 줄을

이었다.
그러던 지난 3월, 아들이 우연히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금도 하루 한끼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식비를 아끼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아들의 말에 김순금 사장은 가슴이 뭉클해났다.
“내가 어릴 적 배고팠던 기억이 떠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애심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 김순금 사장

아이들을 한끼라도 든든히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네자매중 셋째로 태어난 김순금 사장은 어린시절 식구가 많다 보니 배고픔을 견디며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많았다. 아들의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친 김순금 사장은 아들과의 상의를 거쳐 4월부터 ‘애심도시락’을 내놓기

도 있더군요. 일본일조라도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밤 9시 쯤이면 앞당겨 음식점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주는 사랑 받는 감동

“처음엔 그날 팔지 못한 음식들을 있는 대로 보온함에 넣었는데 이튿날 보면 간혹 남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주변에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은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여 요즘은 영양도시락 30인분을 별도로 더 준비합니다. 이튿날 아침 보온함이 비어있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하죠.”
어느 날 가게 카메라를 확인하던 중 김순금 사장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다. 비 내리는 밤,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자전거를 밀고 가게 앞에 나타났다. 마지막 도시락을 꺼낸 뒤 그 아이는 가게 간판을 향해 90도로 머리 굽혀 인사했다. 연속 이틀째

그 아이는 맨 마지막으로 음식을 챙겨 갔다. 김순금 사장은 ‘비를 맞으며 힘들게 찾아온 아이가 혹시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마음에 그 후부터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하기로 했다.
도시락을 받은 학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학생은 “사장님이 주는 밥은 집밥 같아요!”라고 하며 감사를 전했고 생활비가 떨어져 ‘애심도시락’을 먹었다는 다른 한 학생은 나중에 다시 식당을 찾아와 사먹기도 했다.
“저는 화룡현(현 화룡시) 두도진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근처에 세집을 맡고 살았어요. 녀자에 세명이 힘들게 살다 보니 주인할머니는 변변치 않은 저희들의 음식을 보고 고추장이며 밥에서 뜬 상추며 파 등을 챙겨주셨는데 큰 감동을 먹었어요. 이제 제가 먹고 살 만한 중년이 되었으니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죠.”

그 아이는 맨 마지막으로 음식을 챙겨 갔다. 김순금 사장은 ‘비를 맞으며 힘들게 찾아온 아이가 혹시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마음에 그 후부터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하기로 했다.

도시락을 받은 학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학생은 “사장님이 주는 밥은 집밥 같아요!”라고 하며 감사를 전했고 생활비가 떨어져 ‘애심도시락’을 먹었다는 다른 한 학생은 나중에 다시 식당을 찾아와 사먹기도 했다.

“저는 화룡현(현 화룡시) 두도진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근처에 세집을 맡고 살았어요. 녀자에 세명이 힘들게 살다 보니 주인할머니는 변변치 않은 저희들의 음식을 보고 고추장이며 밥에서 뜬 상추며 파 등을 챙겨주셨는데 큰 감동을 먹었어요. 이제 제가 먹고 살 만한 중년이 되었으니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죠.”

나눔 실천이 일으킨 감동의 릴레이

김순금 사장의 선행에서 힌트를 받은 그의 아들은 ‘9.9원 따뜻한 밥상’이라는 워젯그룹을 만들었다. 월말에 생활비가 긴장한 학생들이 부담 적은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작은 도시락으로 큰 사랑을 보여주셨죠. 저도 그 마음을 물려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김순금 사장의 아들이다.

가게 직원들도 이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퇴근 시간이 늦어져도 불평 없이 도시락을 포장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 엿보인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학생들을 가족처럼 챙겨주는 사장님의 인품을 알기에 더욱 믿고 따르게 돼요.” 지금까지 몇년을 김순금 사장님과 함께 일해왔다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김순금 사장의 ‘애심도시락’ 선행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 애심인사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 마련에 힘을 보태려고 나섰다.

아이와 함께 쌀과 식용유 등 식재료를 가게까지 들고 온 부부가 있는가 하면 매년 김치 30인분을 추가로 보내오는 공급업체도 있다. 단수로 가게 물품공급이 떨어질 날에 “오늘은 내가 도울 차례”라며 순대와 감자만두를 보내온 음식점 사장들도 있고 아이들에게 피자도 맛보고 싶다면 피자를 보내오는 사장님도 있었다. 요즘에는 연변대학의 교수님과 외지 관광객들까지 찾아와 ‘의미있는 식사’를 하며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심사일반, 사회각계 애심인사들의 공동한 노력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애심도시락’ 메뉴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모두가 함께하니 더 큰 힘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밥을 숨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정이죠. 이 작은 도시락이 필요한 이들에게 세상의 가치 발길을 헤쳐가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순금 사장의 기대와 함께 그를 둘러싼 많은 이들의 자자한 확고한 나눔이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해본다. / 리전기자

취업 매하구

조선족 로인들 문예공연으로 친목 다져

5월 26일, 취남현과 매하구시의 조선족로인협회는 취남현 조양진 인민공원광장에서 뜻깊은 친목 행사를 가졌다.

취남현당위 통전부가 주최하고 취남현조선족로인협회와 취남현소수민족문화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두 지역 조선족 로인들의 친목을 다지고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함과 아울러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오전 8시 30분경, 매하구시조선족로인협회 오희국 회장과 윤창해 부회장 등 36명 회원을 태운 버스가 취남현 조양진 인민공원광장에 도착했다.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던 취남현조선족로인협회 환영 대오가 일동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간단한 환영식이 이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정을 수놓아가자’는 슬로건 현수막을 배경으로 행사가 정식 시작되었다.

취남현조선족로인협회 리동희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매하구시조선족로인협회 윤창해 부회장이 답사를 했다.

리동희는 두 조선족로인협회에서 로년사업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고 여러분의 수요에 주목하여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들을 많이 함과 아울러 회원들이 협회의 사업을 더욱 지지하고 적극 건언헌책하여 공동으로 로인협회를 로인들의 따뜻한 집으로 구축해나가지고 말했다.

윤창해는 취남현 관계자들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협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다. 두 협회 문예위원들인 김명희와 리정애의 유쾌한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취남현 조양진조선족로인협회의 대합창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네〉, 〈취남현조선족로인협회회가〉로 막을 열었다. 당을 노래하고 행복한 로년생활을 반영하는 우렁차고 자랑스러운 노래소리는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널리 울려 퍼졌다. 이어서 매하구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준비한 무용 〈경기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속덕궁〉, 〈달타령〉, 취남현조선족로인협회에서 준비한 무용 〈행복한 생활에 해빛 비추네〉, 〈신년무〉, 〈동근달〉, 〈풍악을 울려라〉, 〈둥둥 북소리 축복을 전하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면서 현장은 명절의 분위기로 들끓었다.

점심식사후에도 회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마냥 손잡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협회 로인들은 집체사진을 찍은 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관중 관계자들은 ‘취남현과 매하구시는 통화지역의 가까운 형제 동으로 로인협회를 로인들의 따뜻한 집으로 구축해나가지고 말했다. 윤창해는 취남현 관계자들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나서



‘5.20’ 연길시혼인등기소, 특별한 의미로 가득

매년 5월 20일은 한어로 ‘사랑해’(我爱你)와 발음이 비슷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로맨틱한 등기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올해 연변주공청단위원회, 주민정국과 연길시부련회는 공동으로 다양하고 따뜻한 행사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날 연길시혼인등기소는 3개 등기 창구를 전부 개방하여 신혼부부들의 등기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별히 마련된 ‘행복필수강좌’에서는 연길시혼인가정보도중심 총교문 심미선, 연변대학 문학원 부교수 왕준매 등 혼인가정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해 ‘행복한 가정 꾸리기’,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 ‘고품질적인 혼인생활’ 등 내용으로 강좌를 진행했다. 이 강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부간의 대화 방법과 혼인생활 유지 비결 등을 전수함으로써 신혼부부들이 올바른 혼인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등기 절차후에는 시민정국 일군들이 신혼부부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특제 결혼증액자를 선물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주공청단위원회와 주민정국에서 특별 초청한, 결혼 63주년을 맞은 다이아몬드혼 부부 우중해(90세), 공예화(87세) 량주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두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직접 결혼증을 전달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네!”라고 진심어린 조언을 했다.

이에 한 신혼부부는 “60년이 넘

는 세월을 함께하신 두부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그들을 본보기로 혼인,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가정의 앞길을 경영해나갈 것입니다.”라고 감동을 표했다.

주공청단위원회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 제작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무료 촬영 봉사팀을 제공해 달콤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을 위한 레시·결혼 시전 가전제품 장식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신혼가정을 위한 특별 할인을 제공했다. 신혼부부들은 QR 코드를 스캔해 가전제품과 인테리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세심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주공청단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련애, 결혼 지원을 비롯해 가정생활 안정화, 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청년들이 연변에서 사랑과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길시부련회회는 전국, 성, 자치주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선정된 대표들을 초청해 신혼부부들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했다. 시민정국 직원들은 신혼부부들을 이끌고 결혼서약서와 문명결혼홍보제의서를 낭독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행사는 신혼부부들에게 진정한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 리전기자



김순금 사장 가게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그와 함께 몇년을 일해온 ‘동지’들이다.

대형계열기획보도 백성이야기